



Reformed Cafe

[리폼드 카페]

Church centered.....

God centered.....

Bible centered.....



하나님 중심 + 성경 중심 + 교회 중심

대구경북 SFC 소식지

2012년 12월호 통권 43호

www.tksfc.net





R^eformed Cafe

Reformed Cafe는 SFC를 통해 훈련받아 살고 있는 개혁신앙의 모습을 전하고
운동원과 간사, 동문과 지역교회가 어우러져
개혁신앙의 실현을 위해 토론하는 대구경북지역소식지입니다.

03 대표간사서신 •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그리고 예루살렘 • 허태영

05 우기의 개혁스캐치 • Choice • 설재욱

06 개혁논단 • 네덜란드에 비취본 한국교회 정치참여에 관하여 • 이세령

09 올간사의 영어로 개혁신앙읽기 • 권율

학신카페

11 경북지방 SFC / 13 대구U 안동대학교 SFC 남경원

15 경산U 대구대학교 SFC 성소영 이재호

동문카페

17 동문논단 • SFC의 사회참여 • 김중락 / 20 동문 멘토링 제도 • 박윤배

22 대경 동문회 소식

해외지부카페

23 해외지부 기도제목 • 국제부 / 24 필리핀에서 온 편지 • 백종익

운동원카페

26 운동원 논단 - SFC운동원의 정치 참여와 그 방향 • 전호신

29 SFC 양케이트 / 32 LTC(위원훈련모임),SLA(SFC 리더십 학교) 후기 • 송영록

33 • 개학부흥회 후기 • 김신성 / 34 명랑 운동회 후기 • 여석준 / 35 개혁주의 특강 후기 • 남재준

간사카페

37 신입간사를 소개합니다 • 배지현, 서성욱 / 38 간사 소식

44 겨울수련회 안내 사역게시판 / 46 후원자 명단

vol.1 2012_12(통권43호) • Reformed Cafe 제 2호 • 발행일 2012년 12월 1일
• 발행처 대구경북학생신앙운동(TKSFC)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123-36번지 2층 701-813
• 전화 053-759-0840, 070-8232-5499 • 팩스 053-759- 9489 • 이메일 tksfc@hanmail.net
• 발행인 허태영 • 편집인 서우석 • www.tksfc.net





대표 간사서신

함께 지어가기 가는 우리, 그리고 예루살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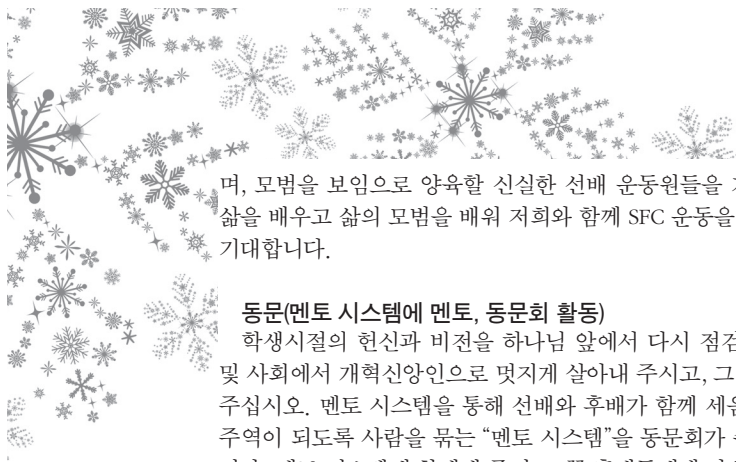
허태영 간사

2012년을 하나님과 여러분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2013년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SFC는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학원과 세상 가운데서 사역합니다. SFC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새로운 한 해도 지속적으로 지어져 가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파송 받은 목적을 따라 세상 속에서 복음화(복음전도와 문화변혁)의 사역을 잘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SFC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순간 교회의 일원으로 지어져 가야함을 잊지 않는 것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힘을 모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 것처럼, 협력하는 SFC와 동역의 주체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완성된 성벽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 제비 뽑을 때 자원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자원하는 SFC와 동역의 주체들을 기대합니다(느11:1-2).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있는 시온(예루살렘)이었지만,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순종의 관점에서 SFC사역을 보고 헌신할 동역자들을 기대합니다. 청소년 및 대학생 사역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사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함께해야 할 사역입니다. 이 일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아래와 같이 찾으며 기도합니다(눅10:2).

운동원(헌신, 양육과 운동의 주체)

다시 이 운동의 주체로서, 위원 및 알들로 전도와 양육, 행정 모든 부분에 주체가 되어 섬길 운동원들을 기다립니다. 후배를 가르치고 인도하





며, 모범을 보임으로 양육할 신실한 선배 운동원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선배들의 삶을 배우고 삶의 모범을 배워 저희와 함께 SFC 운동을 전개할 신실한 새내기들을 기대합니다.

동문(멘토 시스템에 멘토, 동문회 활동)

학생시절의 헌신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및 사회에서 개혁신앙인으로 멋지게 살아내 주시고, 그 은혜들을 후배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멘토 시스템을 통해 선배와 후배가 함께 세움을 받고, 강령구현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사람을 묶는 “멘토 시스템”을 동문회가 주축이 되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멘토 시스템에 함께해 주시고, 꼭 후배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해외선교 못지않게 SFC 사역의 중요성을 이해해 주시고 선교헌금을 하는 만큼 SFC를 위한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대학SFC 지도목사, 중고SFC 담당 사역자를 협력간사로 파송, 기도, 연합사역협력)

학생들을 SFC로 보내주셔서 양육을 받게 하고, 그들이 평생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조력해 주십시오. 잘 양육하여 교회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두고 함께 논의해 주시고, 지도위원회를 통해 더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전체 기도회 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SFC를 위한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부교역자들을 파송하여 SFC와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과, 담임 목사님들이 각 학원 지도목사님(2013년 강화)으로, 중고등학교를 입양(2014년 시작계획)하여 기도하며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청소년 선교단체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년간의 준비를 거쳐 Teen-SFC 사역을 학원현장에서 감당하려고 2013년부터 준비하고자 합니다(작은 규모의 사역을 병행하면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헌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간사(협력간사 발굴, 전문사역능력개발)

SFC는 전임 간사들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문과 운동원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아울러, 많은 협력 간사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연합 사역을 위한 협력간사로 헌신할 중고등부 담당교역자와 교회 SFC 교사들, 그리고 현역에서 일하시는 학교 선생님과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겨울 중에 협력간사 훈련을 개설하여 함께할 분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임 간사들이 3년 이후에는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학생들과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사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과 세계의 개혁교회를 세우며, 학원과 한국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뤄가고자 하는 SFC 사역에 많은 동역자들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지원사역팀”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눅10:2)





우기의 개성작스케북

설재욱 동문 _ 대구대(동일교회)

Reformed cafe

- Choice

대박을 꿈꿀 때에도..	공부와 게임 중 고민할 때에도..
무엇을 쓸 것인가에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당신이 생각하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조성된 이미지만으로 선택합니까?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 삶을 살펴보며..	2012년 12월 19일 소중한 당신의 한표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신중하고 현명한 한표가 올바른 일꾼을 뽑는 기반이 됩니다 / 육이블로그 : <http://blog.naver.com/tjfwodnr20>

대구경북 SFC 5





네덜란드에 비춰본 한국교회 정치참여에 관하여



* 이세령 목사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참여함으로 사회를 좀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는가? 필자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있다면 그 가능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역시 성경적인 복음에 있다.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섬긴다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리라고 본다. 복음의 은혜에 충실한 것이 죄를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개혁과 신학이 낙관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소위 선지자적인 비판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죄를 이기는 것은 복음이다. 그러나 세상은 전적인 타락의 현장이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모순적인 신앙고백을 가진 개혁파 성도들이 정치라는 국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이 변화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낙관적이며 비판적인 차원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의지하게 된다. 낙관적으로 역사가 갈 것인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흐를지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

몇 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가 살았던 네덜란드의 교육 이야기를 하겠다. 오늘날과 같은 네덜란드의 교육제도의 틀은 아브라함 까이퍼가 놓았다. 그 특징은 먼저 공립과 사립이 모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둘째로, 부모의 이데올로기(신앙을 포함)에 의해서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자녀 교육의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존중한다. 물론 엡6:1-3에 근거한 것이다. 셋째로, 부모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교육 전문가에게 자녀를 맡기도록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사립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도 세웠다. 여기의 재정에 국가가 차별 없이 지원한다.





이렇게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 즉 언약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려는 의지가 흐른 반 프린스터에게서 일어나서 아브라함 까이퍼의 정권에서 열매를 맺었다. 이때 자유대학이라는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사립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 돈 일원 한 푼 내지 않는 공교육과 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인가? 대안학교 혹은 기독교 학교들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지원 하는 교회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름으로 약 120년 전에 네덜란드 개혁파 정치 집단의 노력으로 이루어내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제 시간이 흘렀다. 오늘날 네덜란드 사회는 한국보다 훨씬 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슬람 집단이 인구 7-8%에 이른다. 개혁파 정당은 아니지만 기독교정당이라고 이름하는 정당에는 공식으로 무슬림 의원을 한명 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슬람의 인구가 많다. 유럽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한국도 이슬람의 중요 목표지점이란 소릴 들었다.

여기서 아브라함 까이퍼 시대에 이루어 놓은 개혁파 정신에 의거한 정치적 노력의 열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의 신앙(이데올로기)에 의한 자녀 교육의 권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슬람 사람들도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이슬람 학교에 보내겠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 통합의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무슬림들이 네덜란드 말도 배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게토(ghetto)를 형성해 살고 있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슬람 방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보편적 가치에 의한 교육을 지향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려는 국가의 노력이 위기를 맞는다. 그래서 이민 1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세대들은 보통의 교육을 받도록 사회가 노력을 한다. 여기서 걸림돌이 있다. 바로 기독교 사립학교이다. '왜 기독교인들은 사립학교를 설립해 국가 지원을 다 받으며 교육을 하면서 이슬람들을 차별대우 하는가?'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으로 인해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기독교 사립학교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즉 국가의 재정 지원을 줄이는 것이다. 100년 전에 종교라곤 기독교 밖에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에 개혁파 정치가들이 세운 최선의 정치적 노력의 결실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사회의 큰 짐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아브라함 까이퍼의 영역 주권이란 개혁파 이론이 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개혁파 기독교 정치가 자라났다. 그런 이론이 남아공화국에서 치욕적인 열매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분리) 정책의 사상적 배경이 된다. 물론 타락한 적용이라고 본다. 각각의 집단들의 권리가 충돌될 때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혈통적인 차이가 권리에 우선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백인종과 흑인종의 영역은 자연의 영역이기에 다른 어떤 것에 우선되는 구별점으로 이해되었다. 인간의 집단적 이기심을 배경으로 한 소위 신칼빈주의 정치 철학이 배경이 된 최악의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치가 가진 매력을 알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다.
개혁과 신앙인들이 정치에 헌신하는 것도 좋은 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겸손이 언제나 필요하다.
땅 위에서 한계가 있는 노력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유럽에서 종교개혁 시대를 보자.

독일은 종교개혁에서 성공한 나라이다. 루터는 제후들의 도움으로 슈말칼텐 동맹을 지휘하면서 그 동맹을 이끌었다. 뮐베르그에서 동맹군이 칼 5세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지났지만, 작센의 선제후 마우리스 공이 마음을 돌이킴으로써 칼 5세를 굴복시키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이끌어내어 루터파 중심의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안정시켰고, 이후 북 유럽과 오스트리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를 보자. 칼빈의 조국이다. 칼빈은 조국을 떠나 망명의 세월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보냈다. 프랑스는 신성로마제국 황제와의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개혁과 신학을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대부분 카톨릭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 1572년의 바돌로뮤 학살 사건과 낭트 칙령을 철회하는 루이 14세의 선언(1685)에 의해서 기독교는 핍박과 광야로 내몰렸다. 이후 18세기 종교의 자유가 찾아오지만, 개신교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다. 프랑스 위그노들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전개되었다.

스위스가 자유도시라는 배경을 가지고 도시 의회를 중심한 개혁과 종교개혁을 상당부분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쾰른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에서처럼 모든 스위스의 칸톤(주)들이 개혁과 신앙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다. 물론 칼빈과 같은 철저한 개혁과 신앙을 견지하는 노력이 제네바와 같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학교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로잔의 아카데미는 베른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서 개혁과 신앙을 철저히 견지하지 못하고 그 교수들이 제네바로 옮기게 된다.

이제 대선이라는 정치의 계절이 왔다. 어떤 사람을,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가? 답이 있을까? 그동안 출마했던 분들보다는 훨씬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장이나 안정,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그로 인한 복지 정책,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양극화 현상의 극복 등을 위해서 누구도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는 현실이 필자에게는 안타까울 뿐이다. 정직하고 솔직한 정치가 가능한 시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1등이 아니어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력이 존재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우리는 정치가 가진 매력을 알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다. 개혁과 신앙인들이 정치에 헌신하는 것도 좋은 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겸손이 언제나 필요하다. 땅 위에서 한계가 있는 노력이다.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한 방편으로 노력하지만, 낙관일지 비관일지 모르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성경에서 손은 전쟁적인 용어임과 동시에 정치적 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한계 내에서 겸손하게 판단하면서 서야 한다. 인물을 중심으로 보든지, 정책과 공약을 보든지 좋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조금 나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허락하시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 보자.

* 이세령 목사, 전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현재는 이임하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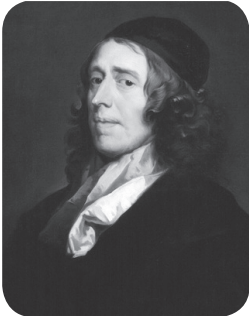




올간사의 영어로 개혁신학 읽기



one Open education
learning
never
primary
offer
believe
interconnected
programs
become
providers
represent
possible
skills
opportunities
hiring
global
English



John Owen

이번 호에서는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는 존 오웬(John Owen)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1616년 영국 옥스퍼드주 스타드햄에서 출생하였고, 12세에 옥스퍼드의 퀸즈 대학에 입학하여 학사(B.A.) 및 석사(M.A.)를 마쳤으며, 훗날에 옥스퍼드의 부총장까지 역임하였다. 특히 10대 시절에 그는 매일 18-20시간씩 학업에 매진하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의 고전어를 통달하였고,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을 쌓으며 고대 교부들 및 중세 스콜라 신학에도 매우 능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갖춘 그의 저술들은 21세기의 가벼운 신학적 분위기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준다.

죄에 대해 갈수록 무감각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오웬의 저술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본질, 힘, 속임 및 우세함에 관하여』 (*On The Nature, Power, Deceit and Prevalence of Indwelling Sin in Believers*)는 죄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치며,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깨워준다. 감사하게도 주옥같은 이 저술은 국내에도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2009년 ‘부흥과개혁사’에서 출간된 바 있다.

이 책의 제1장에서 그는 로마서 7장 21절을 주석하며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본질을 다룬다. 이 부분의 원문을 소개하면서 우리 SFC가 신조로 고백하는 소고리 문답과 관련지어 보려고 한다. 아래 인용된 각 단락 끝에 나오는 숫자는 원문과 번역문의 각 페이지를 가리킨다.

... namely, that it is the condition of a regenerate person with respect to the remaining power of indwelling sin, which is there proposed and exemplified, by and in the person of the apostle himself. (p.31)

따라서 결론을 말한다면, 본문의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여기서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내재하는 죄의 잔존 세력에 대해 증명하고 예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쪽)

... they that find not its power, are under its dominion. Whoever contends against it, shall know and find that it is present with them, that it is powerful in them. (p.35-36)





죄의 권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와 싸우는 자들은 누구든 죄가 자기 안에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존재하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38쪽)

... whence is our third observation. There is, through grace kept up in believers, a constant and ordinarily prevailing will of doing good, notwithstanding the power and efficacy of indwelling sin to the contrary. (p.36)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세 번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신자들 속에는 내재하는 죄의 힘과 효능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지속적이고 통상적인 주도적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39쪽)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가 누구인가를 두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7:15,19), 여기에 나오는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 오웬은 여기에서 “나”는 거듭난 신자로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며, 이 본문은 바울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의 세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본다.

오웬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 안에 죄의 권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거듭난 신자이다. 왜냐하면 신자는 죄와 싸우려는 선한 의지를 가졌기에 거듭난 본성상 죄의 지배 아래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신자들 속에도 끊임없이 죄가 힘을 가지고 효능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도 비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는 죄의 영향력에 그저 굴복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에 대해 오웬은 신자들 속에 내재하는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선한 의지가 있음을 주시시킨다. 즉 우리 안에서 죄의 힘과 효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의지가 신자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성화(聖化; Sanctification)와 관련된 문제이다. 신자 안에 존재하는 선한 의지를 날마다 강화시켜 하나님의 계명에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의에 대해서는 더욱 살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해야 한다(6:11). 이 사실은 우리 SFC가 신조로 받아들이는 소고리 문답 제35문이 잘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성화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꿈틀거리는 죄악들과 날마다 싸우며 죄의 힘과 효능을 조금씩 소멸시키는 복된 신자가 되도록 힘쓰자!

[참고문헌]

- John Owen, *On The Nature, Power, Deceit and Prevalence of Indwelling Sin in Believers*, Glasgow: Chalmers and Collins, 1825, (출처: <http://books.google.co.kr/books?id=AXcwAQAAMAAJ>)
- 김남준, 『존 오웬의 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8.
- 존 오웬,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역사가 흐르는 경북지방 SFC

경북지방은 대구·경북지역 SFC에 속한 학신 중에서 역사가 제일 깊은 학신입니다. 오래되기도 했지만, SFC의 역사와도 관련된 분이 많습니다. 학신가를 지으신 김주태 장로님만 언급해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쟁쟁한 선배들이 많고, 보고 배울 점들이 많은 지방인데, 쉽지 않은 사역 구조들 때문에 점점 우리의 교회에서 잊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사역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 신앙고백으로 한 몸을 이루며 자라가야 하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는 계속해서 잡고 있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자라나는 것들을 꿈꾸며,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들을 돌아보며 문안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교회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제목을 받아 함께 기도하며 자라나는 것을 꿈꿉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사역을 잘하지 못하지만, 교회가 자라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소망들은 굳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키워왔던 그 꿈들을 저희도 꾸며 계속해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 사역하고자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십시오^^





준비하고 있는 중고생대회

수련회 사역은 지방 사역의 꽃입니다. 지방에 속한 약 40개의 교회가 다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참석하여 같이 교회 건설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같이 자라나는 것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주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를 택하라”(수24:15)는 주제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테마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중고생 운동원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십시오!

한해를 돌아보는 위원들

최진영 - 지방위원을 하면서 교회연합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가 교회의 연합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동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사용될 부족한 저희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세요.

김영은 - 경북지방 위원장 김영은입니다. 지방사역을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저의 중고등학생 시절을 많이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가장 귀한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늘 생각합니다.

문영광 -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약하고 의지력 약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사역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마음을 주시며 감당할 힘까지 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아람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지방사역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나의 일에 치우쳐 소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위원의 자리를 통해 내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다른 교회들을 품고 기도하며, 연합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며 귀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경북지방 기도제목]

1. 경북지방 위원들이 교회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2. 경북지방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방위원들과 준비위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 사람을 만족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3. 수련회의 주 강사와 기타 강사들이 바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소서.
4. 힘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맺히길 믿고 수고의 씨를 기쁨으로 뿌릴 수 있도록 하소서.
5. 자주 함께 하지 못하는 위원들이 서로를 기억하고 권면하며 동역할 수 있게 하소서.





<< 안동대 SFC

주 여호와와 우리의 힘!



안녕하세요. 안동대 SFC!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요. 저희는 경북 안동시. 그 변방에 위치한 7000 학우가 함께하는 경북 유일의 국립대학교입니다. SFC를 사랑하시고 축구를 사랑하시는 멋쟁이 황성하 간사님과 개성 뚜렷한 28명의 학생들이 오순도순 함께하는 학원입니다. 큰모임 때는 보통 15-20명이 모입니다. 전에는 큰모임 후 계속 식탁공동체를 했지만 이번 학기부터 “6시 식탁공동체, 7시부터 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들 배고픔에 허덕이며 모임 참석을 힘들어 하기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배부른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던가요. 조금은 군소리 없이 다들 집중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저희 안동대 SFC의 자랑이라면 ‘다들 착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소개할 게 없으면 밀도 끝도 없이 착하다고 자랑하나 생각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착합니다. 얼마나 착한지 서로 서로 미안해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벌어지는 곳입니다. 정말 와서 보면 재밌습니다. 놀러오세요~^^ 아! 특히 이번 학기에 또 다른 즐거움은 수요일 아침이면 학교 풋살장에서 모여 아침축구도 하고 개인적으로 농구를 좋아하다보니 동생들을 데리고 농구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학교 입학이래, SFC 가입 후 이처럼 운동이 자율적으로 활발히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 SFC 13





니다. 즐거운 마지막 학기!!

안동대 SFC에서는 1학기 때 ‘살림, 더불어 살림하기’의 일환으로 편지쓰기 운동을 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고 마음을 여는 편지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운동을 함께 준비하며 기대했던 것은 운동원들이 자유롭게 낮 간지러운 것도 참으며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카톡이나, 문자와 같은 쉽고 간편한 인스턴트 메시지만으로는 우리네 삶의 소통이 결코 건강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의 아쉬움을 남긴 운동이기도 합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 갈 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능동성을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큰 운동이었습니다.

2학기엔 한 달에 한 번 ‘포럼’을 열어 전국정기위원회나 학.대.모.에서 다루어진 주제 혹은 학원 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들을 정하여 발제자들을 정하고 그들의 발제문을 통해 함께 주제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운동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포럼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포럼에선 ‘학원 복음화에 대하여’, 두 번째 포럼에선 대선을 앞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할 정치에 대한 자세와 운동’에 관한 생각을 듣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좋았던 것은 늘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입 밖으로 꺼내어 생각을 나누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운동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았기에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학원을 두고 하는 기도제목이 있다면 1학년들을 위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 중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돌아볼 겨를 없이 달려와 이제야 조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 속에서의 혼란.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의 손짓.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힘입어 기쁨이 없는 세상 속에 유일한 기쁨을 누리고 소망하는 1학년 운동원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알돌로서 섬길 자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더한다고 할지라도 알돌로서의 달란트가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돌로서 섬길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얻는 이 운동이 계속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학기가 마무리 되는 가운데 이 글을 쓰다 보니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위원장이 되어 LTC를 하고 학기를 준비하며 바라본 공동체. 잘하는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많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 안동대 SFC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소망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른 운동원들이 무엇을 누리고 느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뿐인 저에게 저와 함께할 동지들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학원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강점으로 채우되 그것을 사랑으로 채우는 공동체를. 지금까지 저희는 그런 모습을 바라며 함께 달려가는 안동대 SFC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3:13-14)





<< 대구대 SFC

1년차가 바라보는 대구대 SFC.

12학번
성소영



입학 전 SFC를 두고 고민하던 때를 떠올리며 1년이 지난 지금, 대구대학교 SFC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능이 끝난 어느 주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언니와 SFC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SFC를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함께 배우고 고민해 가는 것이 좋더라고, 함께 해보자며 언니가 SFC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내가 가게 될 간호학과와 대구대학교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구대 SFC는 현재 경산캠퍼스에서 모임이 있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간호학과는 대명동 캠퍼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 SFC 모임을 참석하려면 대명동에서 경산까지 1시간 걸려 가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처음에는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저 SFC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도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1학기 시간표가 나왔는데, “와우? 월요일 목요일마다 연차모임, 큰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날마다 경산캠퍼스에서 수업이 있다는 게 아닌가!” 난 그 순간 “와!” 하며 모든 고민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 하는 거다!” 그렇게 가게 된 대구대 SFC. 그 곳에서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재미있었고, 처음에는 그저 학생신앙 동아리의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간사님과 선배, 친구들과 교제하고 나누며, 컨닝추방운동, 브라운데이운동, 부재자투표운동을 하고, 또 작은모임, 년차모임, 큰모임, SLA 등의 모임들, 대학생대회 그리고 정기대회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아, SFC는 학생신앙‘운동’이구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가는 운동원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대하여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SFC... 꼭 가야만 하나 라고 고민했었는데,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SFC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행여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도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고마운 동지들.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꿈을 품고 있는 대구대 SFC 동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SFC 15





<< 대구대 SFC

모이기에 힘쓰자!!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모여서 비전을 공유하는 대구대 SFC



07학번
이재호

우리는 서로를 “학생신앙운동원”이라 부르며, 서로를 “개혁주의 신앙인”이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기억하며 대구대 SFC는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주제를 외치며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한 전체모임보다 자발적으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을 통한 움직임들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책을 통해서 삶을 나누며 서로의 신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책 모임.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개혁주의 신앙을 공부하는 교리 모임.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쓰기 위해 가게부 점검으로 모이는 자.매.품 모임.

네 번째, 캠퍼스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매주 같은 자리 같은 곳으로 나가는 전도 모임.

위와 같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한걸음씩 맞춰 나갔습니다. 그 중에 전도모임은 작년에도 공식적인 모임으로 진행했었지만 이번에는 전도에 대해 사모하는 운동원의 시작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알돌이 준비하며 시작했던 작년의 경우에는 인도하는 위원알돌들 중심으

로 참여하게 되었고, 전도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조별로 캠퍼스로 나가며 전도의 필요성을 운동원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전도에 뜻을 가진 두 명의 운동원이 초석이 되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주 동일한 시간을 정하고 4-5명씩 모여 도서관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한 뒤,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돌아와 기도로 모임을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운동원들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인도자를 보며 배우게 되고 다시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학기동안 600여명의 친구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증거가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에서 열매로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앞으로도 힘차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스스로 모이는 전도모임은 함께하는 운동원들 모두 그 시간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 기대들이 조금씩 대구대 SFC 운동원들 속에서도 스스로 전도에 도전하게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전하기에 힘쓰는 학생신앙운동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문논단

SFC의 사회/정치 참여 방향성을 말하다.



김중락 교수

본 글은 김중락 동문이 2012년 가을간사 수련회에서 강의한 강의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전략

2) 개혁주의와 사회개혁

개혁주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영혼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부분이 구원의 대상이다. SFC는 이러한 개혁신앙의 전통을 중요한 자산으로 물려받았다. 비록 학생들의 위치에서 사회와 문화 개혁에 대한 큰일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역 시절에 배우고 훈련받은 것은 SFC 동문들의 남은 생애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2011년 SFC 총동문회가 발간한 『SFC 동문운동, 그 현장을 가다』에는 이러한 동문들의 활약으로 가득 차 있다. 기독교 윤리 운동, 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 운동, 기독교 학문 운동, 좋은교사 운동 등의 수많은 사회개혁 운동에 SFC 동문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은 이러한 개혁주의에 대한 강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대학에는 이 대학 SFC 출신의 현역 교수만 6명이 재직하고 있다. 이는 SFC의 전통적 개혁주의 운동과 80년대 학문의 복음화에 강조를 둔 SFC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대구지역에서 자유주의 계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점되어 왔던 사회개혁 운동들이 최근에는 SFC 출신 목회자와 동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도 주목할 일이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SFC의 이러한 노력은 개인적 차원의 것이었고, 단체로서의 SFC가 행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SFC의 사회개혁 운동은 엘리트적 개인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해 참된 기독교인을 양성하고, 참된 기독교인이 행할 일을 제시한 전영창 동문, 한국교회 개혁운동의 주역인 손봉호 동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이만열 동문 등은 가장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이에 비해 단체로서 SFC의 역할은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특히 정치영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참으로 비겁함 그 자체였다. 교회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개혁주의의 입장은 두 왕국 이론(Theory of Two Kingdoms) 또는 멜빌주의(Melvillianism)이다. 다른 말로 ‘영역주권’ 운동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우리의 비겁함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한 잘못을 먼저 살펴보자.

1580년대 존 녹스의 제자, 안드류 멜빌(Andrew Melville)과 그의 조카 제임스 멜빌(James Melville)이 제시한 두 왕국 이론은 교회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두 왕국이란 국가와 교회를 의미하며, 이 두 왕국은 엄격히 분리되며,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속 군주는 국가의 통치를 담당하지만, 교회는 그의 통치 영역 밖에 존재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또 다른 왕국이므로 세속 권력이 절대로 간섭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임명한 교회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단지 세속 권력은 교회가 외부의 세력에 의해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속 권력에게 정의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맡겼지만, 교회의 일에 간섭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교회는 세속 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다. 세속적 통치는 하나님이 임명한 세속 통치자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속 권력을 장악하거나 통치자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개혁주의의 정치사상은 국가와 교회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두 왕국 이론이며, 이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두 왕국 이론의 새로운 측면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과연 국가에 대해 간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영역주권 이론이나 두 왕국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없듯이 교회 역시 정부 일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섭이란 상대방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지, 비판이나 올바른 방향의 제시조차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즉 교회가 정부의 역할을 맡아 신정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전통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는 세속 권력에 대해 가차 없는 비난을 가했다.

개혁주의 전통은 악덕한 권력에 대해 비난할 뿐 아니라, 물리적 힘을 동원해 그 권력을 추방하는 데 적극 참여하였다. 종교개혁 직후 칼뱅파가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무력저항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는 위그노 전쟁, 네덜란드에는 구교 국가인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전쟁, 스코틀랜드에서는 가톨릭 메리 여왕의 추방과 혁명, 잉글





랜드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구약성경의 연방 언약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연방언약(Federal Covenant)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특별한 민족 사이의 언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 전체가 개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약성경을 통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수차례 연방언약에 들어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주기적으로 자신들이 맺은 국민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그들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기도 하였다.⁴⁾

그러면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는 이 같은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SFC 역사의 60년 중 40년은 대한민국이 독재정권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기간과 대부분 중첩된다. 당시 한국교회의 일부는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독재정권에 저항했으나, 대부분 보수교단들은 영역주권이론을 핑계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는 영역주권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기보다는 독재정권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그럴듯한 구실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SFC 역시 같은 논리로 핑계를 대고 비좁은 길을 걸어온 것이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 정치라고 해서 예외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영역보다 그 영향이 크게 미치는 정치 영역을 버려두고 우리가 다른 영역에만 역량을 기울인다면 이는 전략적 실수이다.

이제 60년 역사를 가진 SFC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회개혁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SFC 운동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점점 약화되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 현재 SFC 후배들이 이러한 사회문제를 두고 기독교적 접근에 대한 고민보다는 감성적 신앙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손봉호 교수 역시 이 부분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나는 요즈음 SFC가 CCC, IVF 등 다른 기독교 학생 동아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가는 것 같아 조금 걱정됩니다. 그들 동아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SFC는 그들 동아리들과는 다른 이념과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차별화가 필요해서입니다. 다른 동아리들과 목적이 같으면 합쳐야지 별도의 운동으로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 기도, 성경공부는 기본이지만, SFC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나아가서 사회, 윤리,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등 문화의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분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서 나타내려고 해야 하며,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⁵⁾

3) SFC 총동문회, 『SFC 동문운동, 그 현장을 가다』 (서울: SFC, 2011), 223.

4) 구약성경 역대하 15장과 열왕기하 23장을 참조하라. 넓게는 1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연맹의 규약도 이 범주에 속한다.

5) SFC 총동문회, 『SFC 동문운동, 그 현장을 가다』, 223.

... 후략



경북대 SFC의 동문 멘토링 사업 소개

SFC 운동이 학창시절에만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만두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령이 말하고 있는 개혁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위해 학생 때는 훈련하고 졸업 후에 본격적으로 강령을 구현하는 평생 신앙운동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때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신앙 안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하며, 학원에서 복음화를 실습해 보아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며, 문화의 복음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노력해야 한다. 같은 직업 분야의 동문들과 연계하여,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야 하며, 동문대회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전략을 나누고 개발하는 것을 통해 강령의 구현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은 지난 호에서 말한 바 있고, 여기에서는 학원 SFC에서 선후배끼리의 멘토-멘티 연결 사업에 대해 경북대학교 SFC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지난 7월 전국 SFC 동문대회 이후, 경북대 SFC에서 이 사업을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학교 담당 간사와 8월 초순에 협의를 하여 동의를 얻었고 지역 간사와도 협의를 하였다. 바로, 동문들의 주소록 정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평소 보관하고 있던 주소록에 빈 내용이 많았고, 정보가 변경된 부분도 있어서 동문회 임원들을 통해 동문들의 이메일과 문자를 9월 초순까지 최대한 업데이트 하였다. 이러한 주소록 개정 작업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다. 확보된 이

메일과 문자를 통해 9월 중순에 동문들에게 멘토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멘토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여기에 반응한 동문들은 주로 졸업한 지 오래되어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선배들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동문들에게서 멘토를 희망한다는 연락이 많이 왔다. 중간 층에 해당하는 동문들의 반응은 별로 없었다. 경북대학교 SFC 졸업생 주소록에 있는 497명 중에서 연락처가 있는 250여명에게 연락하였는데, 2주 동안에 24명이 멘토를 지원하였다.

한편, 현역들에게 멘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주간 큰모임을 통해 작성케 하였고 10월초까지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았다. 모두 23명의 운동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학생들이 멘토에게 도움받기를 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는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학생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신앙생활과 학업의 조화)

교회생활(공동체, 부흥)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들어주기
신앙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기

진로에 대한 정보를 성격적으로 고민해
주기(달란트와 진로 결정)

진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10월 중순에 멘토-멘티 연결 작업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학생 대표와 동문 대표, 그리고 간사가 함께 하기로 했으나, 마침 그때 담당 간사는 출타로 함께하지 못하고, 학생 대표 4명과 동문 대표 1명이 모



였다. 먼저 학생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읽으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특성에 맞는 멘토 지원자가 있는지를 선배 주소록에서 찾았다. 학생이 원하는 직업이나 거주지역, 나이 등에 들어맞는 멘토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이나 진로가 애매한 경우에는 관련 전공이나 직업을 가진 멘토 지원자를 연결하였다. 몇 경우에는 멘토 지원을 하지 않은 동문이지만 멘토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동문에게 추가로 멘토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물론 그 중에는 사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수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멘토 지원자에게는 멘티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직업군에서는 지원한 선배보다 현역 운동원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와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일 이년 되는 동문들의 경우에 자신들도 직업 현장에서 적응하느라 분주하여 오히려 멘토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어 멘티를 배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연배가 더 높은 선배들이 멘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단계로, 각 학생들에게 자신의 멘토가 누구인지 알리고, 학생들이 멘토에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멘토를 맡은 선배들에게는 멘티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이제 멘토와 멘티가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학생 대표가 수시로 학생들에게 활동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진행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동문 대표도 수시로 멘토들에게 활동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분기별로 만나 현안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신입 운동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현역 운동원들의 신청서가 있으면 그때 그때 멘토를 연결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인터넷 카페에 오픈 상담란을 설치하여 익명으로 자신의 문제를 올리면 카페에 가입한 동문들 중에서 누구나 조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다.

멘토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후배들을 신앙적으로 직업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선배들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한 대학 SFC나 교회 SFC의 차원에서 소속된 현역들의 멘토를 다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이나 지방 단위로 멘토를 선정하거나,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출신대학의 위치와 거주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대학 SFC 운동원들의 멘토가 되면 직접 만남을 가지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연결사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간사이다. 이 경우에 학원담당 간사가 해야 할 일은 현재 하고 있는 큰모임 인도, 리더 모임 인도, 조직관리 등의 업무 외에 멘토의 선정, 학생들에게 멘토 배정, 멘토-멘티 만남 주선, 후속 관리 등의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추가되는 이 업무가 매우 과중한 것이므로 그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과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나, 점차 새로 배정되는 학생이나 추가되는 멘토의 숫자가 많지 않으므로 업무의 부하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이나 전국 단위에서 이 사역을 담당하는(가능하면 전담하는) 간사를 두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아울러 학원담당 간사의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학생지도 업무에 집중하도록 직무기술(job description)을 새로 규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박윤배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교수, 불꽃교회 장로, 대구 기윤실 공동대표, SFC 총동문회 부회장, 경북대 SFC 출신, 지방 SFC 위원장과 전국 SFC 총무 역임, 교회의 개혁과 기독교 학교 설립에 관심 많음)





대구 / 경북 SFC 동문회 소식

1. 대구/경북 SFC 동문회 임원 및 각 학원 동문회 임원 연석회의

가. 일 시 : 2012년 11월 19일(월) 19:00

나. 장 소 : 대구 명덕교회

다. 참석자 : 대구/경북 SFC 동문회 임원 및 각 학원 동문회 임원

라. 내 용

1) 2013년 대구/경북 SFC 홈커밍데이 논의

① 일 시 : 2013년 2월 28일(목) 19:00 ~ 3월 1일(금)

② 장 소 :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

③ 참석대상 : 대구/경북 SFC 동문 및 현역

2) 대구/경북 SFC 동문회 2013년 임원구성 논의

3) SFC 영역운동 선포대회 홍보

①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19:30

② 장 소 : 고신총회회관 3층 회의실

③ 주 제 : 동문운동 매카니즘의 새로운 모색

④ 프로그램

1부 영역운동 세미나 (19:30-21:10)

- 영역운동의 의미 : 손봉호 동문

- 영역운동의 방향과 실천 : 안현식 동문

- 현역과 함께하는 영역운동 : 박윤배 동문

2부 영역운동 선포식 (21:20-22:00)

- 영역별 모임 활동/모임계획 발표

◆ 교육 영역 : 정병오 동문

◆ NGO 영역 : 최갑주 동문

◆ 교회개혁 영역 : 안현식 동문

◆ 선교지원 영역 : 허태영 동문

◆ 경제/경영 영역 : 오성진 동문

2. 2013년 대구/경북 SFC 홈커밍데이

가. 일 시 : 2013년 2월 28일(목) ~ 3월 1일(금)

나. 장 소 :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

다. 참석대상 : 대구/경북 SFC 동문 및 현역

라. 프로그램

19:00-20:00 식사

20:00-20:40 예배

20:40-21:00 총회

21:00-22:00 영역운동 세미나

- 영역운동의 방향과 실제: 오성진 동문(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

- 현역과 함께하는 영역운동: 박윤배 동문(경북대 교수)

22:00-23:30 학번별 모임

23:30-24:00 기도합주회





우리 기쁨 땅 끝까지! 기쁜 날 열방을 기쁘게!

우리의 기쁨을 해외지부와 함께 나누시다.
해외지부 간사와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마닐라 지부 (남효종 간사 가족, 백중영, 설리, 알돌, 조이 간사)

1. 등록 못한 대학에 동아리 등록과 각 대학에 학교 내 모임을 위한 동아리방이 생기도록.
2. 간사가 없는 chapter에 준비된 간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일로일로 지부 (박현진 간사)

1. CPU 사역의 정착과 일로일로 선교지에서의 협력 사역을 위한 지혜를 주시기를.
2. 3/21 비자 만기 다시 비자 받을 때 2년 받을 수 있도록.

방콕지부 (홍정훈 간사 가족)

1. 1월에 있을 인도차이나 비전트립이 잘 준비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2. 개척동원팀으로 준비된 운동원들이 들어와서 함께 개척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지부 (김00 간사 가족, 정00 간사)

1. 학사를 중심으로 한 양육과 전도가 잘 이루어지도록.
2. 개척한 2개의 교회가 은혜 중에 성장하도록(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소서).

Υ지부 (하00 간사 가족, 이00간사)

1. 학사를 통한 사역에 열매가 풍성하고 필요한 경비들이 채워지도록.
2. 설립된 현지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S지부 (최세태 간사 가족)

1. 언어공부에 진보를 주시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소서.
2. 재파송 지역에서 필요한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일본지부 (손만석 간사 가족, 서유미 간사 가족)

1. 1월에 있을 비전트립이 잘 준비되고, 일본지부가 잘 섬길 수 있도록
2. 엡서너리(이정혜) 운동원이 학사에 잘 적응하고 캠퍼스 사역과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몽골지부 (박선생 간사 가족, 소솔마 간사)

1. 학사에 생활하는 운동원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몽골 SFC의 주역이 되도록.
2. 박 간사 가족의 현지 적응과 언어 훈련에 특별한 은혜를 주소서.





● 해외지부 후원구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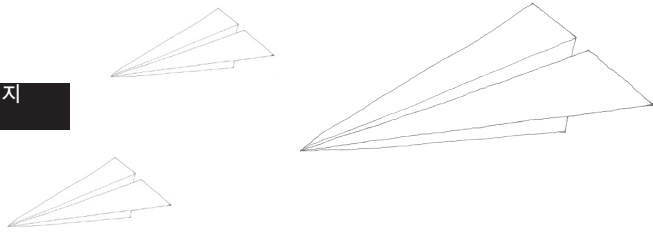
지 부 명	은행명	계 좌	예 금 주
몽 골	농 협	750-12-045681	최연임
B지부	국 민	675-21-0039-121	김 동 춘
S지부	국 민	778802-04-127426	차 상 훈
Y지부	농 협	843-0145-2083319	허 태 수
일 본	대 구	218-07-071009-001	손 만 석
마닐라	국 민	558202-01-385115	남 효 종
일로일로	우 리	1002-531-254914	박 현 진
방 콕	부 산	201-01-000730-6	홍 정 훈
국제사역부	국 민	087901-04-223144	(SFC국제사역부)

연말연시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해외지부에 물품을 전하거나 카드를 보내실 분들과 교회, 지역 SFC에서는 국제사역부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010-4533-7108 국제사역부 총무). 자료: SFC 국제사역부 제공





<< 필리핀에서 온 편지



백종역 간사 sfcteam@naver.com

필리핀에 온지 10개월째입니다. 바쁘긴 하지만 신앙의 분명함들로 인한 교제들이 있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곳에서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1. 센터 사역 : 엡서너리 훈련. 4명의 엡서너리들과 매주 월요일 저녁 레위기 성경공부, 매일 저녁 9시(한국시간 10시) 기도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며 나누며,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기도제목 _ 김태우 운동원이 피부병으로 한달 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잘 치유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엡서너리(SFCionary)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2. 대학 사역 : Far Eastern University(기도제목 _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3명의 운동원을 붙여주옵소서. SFC 강령을 비전으로 삼고 나라와 민족, 학교, 교회를 섬길 개혁 신앙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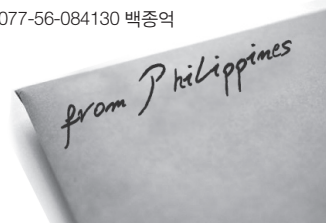
3. 원주민 사역 : 부에노마을, 아이타족(기도제목 _ 부에노 교회의 현지인 사역자 알란(Arlan) 목사님의 사모님이 당뇨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타족 어린이들이 잘 교육받고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들께 사랑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4. 도시빈민 사역 : 톤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톤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지 않고 시끄러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찬양시간에도 적극 참여하며 제법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11월 16일(금)에는 현지에서 6년째 섬기고 계시는 SFC 선배이신 김종명, 황민아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의료사역을 하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00여명의 주민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한 후 치과와 내과로 나누어 치료하였습니다. 이 지역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그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기도제목 - 복음이 아이들에게 잘 뿌려지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열매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환경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시기와 신학공부 후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 없어도 무엇에라도 사용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응답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집중할 한 점을 찾아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 점을 뚫어 나갈 날카로움을 연마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 한 장과 여비. 성경을 잘 배워서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같은 사랑과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의 생활화.)

후원계좌 : 대구은행 086-13-148358 백종역 / 농협 150077-56-084130 백종역





2012 대선과 SFC의 정치참여 - SFC운동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



전호신

들어가며

SFC는 선거 때마다 정치참여운동을 펼쳐왔다. 90년대 들어서부터 SFC는 공명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했고, 2000년대에는 선거참여운동으로서 부재자투표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2002년에는 SFC 주력운동으로 '바른지도자세우기운동'을 정하여 선관위와 함께 선거참여운동을 펼침으로써 각 대학에서 부재자투표운동을 하였다. 올해 4월 11일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전국학원연합SFC는 전국적으로 부재자투표운동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올 해는 두 번의 선거가 있다. 4월에 있었던 총선과 더불어 12월 19일에는 18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다. SFC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한 해이다. 그 간 SFC가 선거와 관련해 펼쳐왔던 운동들을 되짚어보고, 다가올 대선과 관련하여 SFC 운동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현 SFC가 내외적으로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SFC 운동원으로서 - 필자 역시 현재SFC 운동원이기에 -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선거와 SFC

1980-90년대 SFC는 공명선거 운동을 펼쳐왔다. 당시에는 선거 자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SFC는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거나, 공명선거 감시단을 조직하여 불법선거 운동 현장을 찾아서 증거를 입수 후 이를 선관위에 고발하는 일을 하였다. 1992년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공선거위)가 활동했을 때, 공선거위 청년학생위원회에 속하여 공명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선과 대선이 있었는데, 총선 때는 대학 SFC의 연합체인 학신험에 공명선거분과를 두었고, 대선 때는 전국 SFC 산하에 공명선거분과를 두고 활동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선거 자체의 공정성과 선거 제도가 많이 개선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명선거운동보다 선거참여운동에 초점을 두었다. 2002년에는 SFC 주력운동을 '바른지도자세우기운동(세움운동)'으로 정하여 '올바른지도자세우기운동'이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공의 정치포럼,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참여운동을 펼쳤다. 특히 각 대학 내에서는





부재자투표운동을 펼쳐 2000명 이상이 신청한 학교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때에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얼마나 긍정적인 가치에 근거한 것인지 한 번 따져보고, 또한 그 간에 후보자들이 정책을 얼마나 이행해 왔는가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는 운동이었다.

올해 2012년을 맞이하여 4월 11일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전국학원연합 SFC 차원에서 선거참여운동으로서 부재자투표운동을 결의하였다. 총학이나 다른 단체와 연계 혹은 SFC 독자적으로 부재자투표운동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일환으로서 후보선택체크표 - 일반인을 대상으로 작성,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사용가능, 명함 크기로 제작 - 를 만들어 전국 U학신에 배포하였다. 더불어 큰모임 시간에 SFC와 정치참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으며 이에 도움이 되도록 세움운동 매뉴얼 및 선거관련 자료(파일 형태)를 만들어 필요로 하는 학신에 배부하였다.

4월 총선 이후, SFC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학생조직의 입장 정리의 시급함, 이후 다가 올 대선에 있어서의 SFC 운동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올해 5월 전국정기위원회에서 선거관련운동 소위원회 - 전국위원2인, 학신대표2인, 담당간사2인 -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소위원회(세움운동)를 중심으로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올 9월 전국정기위원회에서 그간의 있었던 논의와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각 학원 SFC 현장에서부터 시작되고, 또한 현장에 맞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하고, 그래서 소위원회 및 전국에서는 운동하기에 필요한 자료와 사례들을 배부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각 학원에

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으로 운동을 펼치기를 바라는 의도였던 것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전국학원대표자 모임에서는 대선과 관련하여 강의를 듣고, 모의대선투표를 실제로 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2. 다가올 대선과 S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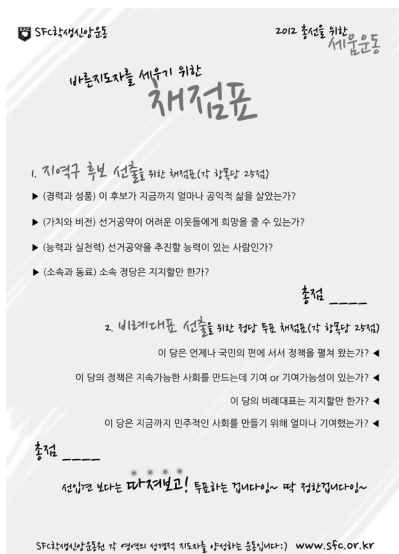
2.1 쿨(cool)한 당신, 제발 투표장으로 가라!

12월 19일 대선을 두고 SFC가 펼칠 수 있는 운동으로서 선거참여운동이 있다. 선거참여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20대 투표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발표한 제19회 국회의원 선거투표율분석에 따르면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37.9%로 68.6%를 차지한 60세 이상의 투표율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간접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작 정책 의제를 내고 결의하는 국회위원에 대한 투표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러니다. 그렇기에 SFC는 선거참여운동으로서 부재자투표운동을 실시하여 대학 내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당장 나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요즘 학생들의 성향을 이른바 ‘소쿨족’(so-cool)이라 명명한다. ‘소쿨족’은 보수와 진보 어느 쪽에도 호의적이지 않지만, 반정치적이기를 넘어서 정치 자체에 무관



○ 이번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자수 비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28.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21.6%), 40대(21.2%), 30대(17.0%)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인수 비율은 40대가 21.9%로 가장 높았으나, 투표자수 비율은 60세 이상(28.1%)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심하다. 이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멋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20대이다. 모든 정치적인 것에 냉소를 보이며, 사회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쿨한 것이라고 믿는다.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투표하지는 않는 게 바로 대학가 학생들의 현실이다. 사회의 제도와 정책을 개선을 통한 win-win을 외치기보다 당장 내 눈 앞에 마주한 현실을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앞에 학점과 당장의 취업을 위한 이들에게 SFC는 외쳐야 한다. “쿨한 당신, 제발 투표장으로 가라!”

2.2 정치에 대한 SFC 운동원들의 관심과 의식 형성

정작 앞서 얘기한 현실은 SFC 운동원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일단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이유는 개혁신학을 두고 SFC가 추구하는 방향성 - 경건주의, 교리주의, 문화변혁적 입장에 대한 - 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작 SFC 운동원들에게 있어서 정치라는 영역은 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치가 SFC

운동원인 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지적 관심, 성경에 걸맞게 개혁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과 노력,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투표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SFC 운동원들이 먼저 개혁신앙인으로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작은 모임(SMC), 큰모임(LMC) 등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모임을 통해 개혁신앙인과 정치에 대한 주제에 대해 강의를 듣거나 토의, 나눔 등을 할 수 있다. 정치와 관련된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의식 없는 우리의 운동은 빈 탕통과 같다. 다가 올 대선을 두고 정치참여에 있어 어떠한 방식을 설정하든지 무엇보다 운동의 주체인 운동원들이 정치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3. SFC가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며

현재 SFC가 내외적으로 마주한 현실이 그리 평탄하진 않은 것 같다. 원인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학생 자발성의 빈약, 운동의 집중성 부족, 나아가 강령을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어 개혁신학에서 오는 지역 SFC간의 입장 차이 등, 외적으로는 대학 사역에 있어서 대학 SFC규모의 축소, 운동성 부족 및 지방사역에 있어서 SFC와 교회 간 협력의 어려움, 고신 교단 안에서 SFC의 애매한 위치 등 다양한 어려운 현실이 산재해 있다. 이것이 현실임은 간사 조직이나 학생조직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현재 SFC운동에 집중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힘이 없는 것 같다. 사실 올 4월에 있었던 총선을 두고 펼쳤던 부재자투표운동을 보더라도 그렇다. SFC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뚜렷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전국 SFC와 현장의 소통이 부재일까? 운동원들 개개인의 SFC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일까? 한편





으론 지금 이 사회의 현실과 구조가 문제인 것일까? 어느 누구 하나 원인이 이것이라고 분명한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SFC 운동에 가치를 두고 이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운동원이 줄어들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4.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SFC 운동원으로 자리매김하자!

학원 SFC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운동함에 있어서 움츠러들고 수동적인 SFC 운동원들의 태도를 많이 본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상황에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나 자신이 감당하기에 어렵고 귀찮고 수고로운 일이면 쉬운 길로 돌아가려

고 하고 한계에 부딪칠 것 같으면 쉽사리 포기해버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태도이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서 버려야 한다. 시대 앞에 비판하고 움츠러드는 태도와 모습을 지니고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SFC 운동원으로서 더 이상 자리매김해서는 안 된다. 대선을 두고 부재자투표운동을 대학 내에서 펼친다고 한들, 성경적 사상과 의식을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우리 운동에 힘이 있을까? 그 운동에 우리 운동에 생명력이 있겠는가?

좌절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자. 하나님이 시작한 우리의 운동에 실패는 없다. 오직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다시 임할 그 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운동하자!

SFC 앙케트

Reformed Cafe 편집부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대구경북지역의 운동원들은 어떤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라는 공약은 무엇인지를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의 운동원 80여명에게 실시된 이 설문조사를 통해 운동원들의 정치의식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보고 바르게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SFC 운동원의 태도는?

1. 대선이 언제 있는지 모르며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2명, 2.5%)
2.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크게 관심은 없는 편이다 (22명, 27.5%)
3.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문이나 TV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선 후보에 대한 정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36명, 45%)
4. 각 후보에 대한 정보를 나름의 관점을 갖고 해석하며 사람들과 공유한다. (15명, 18.75%)
5. 기타(5명, 6.25%)

대경 SFC 운동원들은 60% 이상이 대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선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세움운동과, 부재자투표 참여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임과 의무를 선거라는 제도 위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대구경북 SFC 29





이렇게 대선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운동원들은 도대체 대선 후보와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내가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공약은〉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해주시시오.(11명)
 공교육/입시제도 개선, 특수교육 임용인원 확대, 유아교육의 의무화 등 교육제도 개선(10명)
 약자에 대한 보장 및 국민을 위한 복지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10명)
 공약을 꼭 실천해 주세요.(8명)
 중소기업 안정화/ 이공 관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5명)
 독도 문제와 동북공정에 대한 분명한 성명 등 국가 보안문제에 힘써 주세요.(5명)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 주세요.(4명)
 반값 등록금을 확실히 시행해 주세요.(3명)
 물가가 안정되게 해주세요.(3명)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 주세요.(3명)
 법원에 대한 모든 형량의 조정과 성폭행,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3명)
 통일을 위해 힘써 주세요.(2명)
 주일에는 공시험을 실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출산율을 장려해 주세요.
 군대 복무기간을 줄여 주세요.
 여성부의 역할을 바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별 초봉 기준을 높여주세요.
 외국인 한국 방문(문화재 관람)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세요.
 국가 유공자 범위를 확대시켜 주세요.
 미혼모, 십대임신 지원을 확대시켜 주세요.

운동원들에게 요구한 것이 공약과 정책인 것을 감안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정직 문제이다. 공약에 대한 실천 문제도 상위권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면 그간 많은 운동원들과 국민들이 부패한 현실정치에 대해 염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 중 다수가 교육 관련 학과에 속해 있다 보니 전공과 관련 된 공약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복지 문제의 개선과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운동원들에게 큰 관심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선거 전에는 마치 일생일대의 문제인 것처럼 큰 관심으로 달려 들었다가, 선거를 마치고 나면 식어버린 냄비가 되기 일쑤다. 그러고는 비판한다. 그간의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더하신 것뿐 아니라, 그 위정자가 잘 다스리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우리의 운동이 위정자들의 다스림과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

동시에 SFC의 '세움운동자료집'의 기도제목을 첨부한다. 대선 기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회 가운데서 지속될 때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제목일 수 있도록 묵상하며 기도할 것을 권유한다.





〈대선을 위한 기도제목〉

1.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 인간의 죄악이 가져온 거짓과 탐욕, 악한 사회구조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악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사회가 되도록.
 -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국가의 통치기구들(정부, 국회, 법원 등)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2. 선거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SFC를 위해
 - 이 땅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과 통치가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 학연, 지연 등의 인맥, 경제적, 사회적 이익 등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를 기준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 세움운동을 전개하는 SFC 운동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와 복음화에 대한 열정으로 이 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 세움운동을 통해 먼저 SFC 운동원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선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3. 사회의 변화와 공정하고 바른 선거를 위해
 - 각종 부정선거들이 사라지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 중대선거제나 비례대표제 확대 등 민의가 잘 드러나는 선거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하는 안목과 그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열정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 LTC, SLA 후기



2012년 2학기 LTC(위원/알돌훈련)

일시 _ 2012년 8월 31일(금)~ 9월 1일(토)

장소 _ 동일종합수련원(경북 성주)

대상 _ 대구경북지역 SFC 위원/알돌 전체

내용 _ 2학기 사역설명 및 기도합주회, 선교바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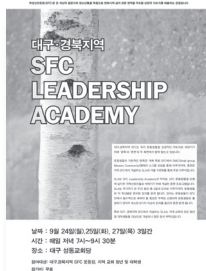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는 2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지역 내 각 학신 위원/알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개혁신앙 운동으로 부르신 부르심을 재확인했습니다. 타 지방과 학원의 위원/알돌들과 교제하고 서로의 사역 계획들도 나누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선교바자회'도 진행되었는데 SFC가 파송한 해외지부 간사님과 대구경북 SFC 출신 선교사님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2012년 2학기가 SFC 리더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든든히 세워져갔음에 감사를 전합니다. / 편집부

2012년 2학기 SLA(SFC 리더십 훈련)

일시 _ 2012년 9월 24,25,27일(월,화,목)

장소 _ 성동교회

대상 _ 대구경북지역 SFC 운동원 전체



SLA는 SFC Leadership Academy의 약자로, SFC 운동원들을 강령에 입각한 개혁신앙 인들로 세워가기 위해 개설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SLA는 학기마다 한 주간 동안 총 3일의 강의로 이루어지며, 운동원들은 각 학년별로 준비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강의는 운동원들이 SFC 안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중요한 주제로 선정되며, 운동원들은 졸업하기 전까지 최소한 8가지 이상의 강의를 들으며 훈련 받게 됩니다.

2012년 2학기 SLA 강의는 학년별로 이루어졌습니다. 1학년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학업, 성경 통독과 암송, 기도, 2학년은 소그룹 인도법, 리더십, 3학년은 신약파노라마, 기독교 세계관, 4학년은 성경적 물질관, 진로결정의 원리와 졸업 이후의 삶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까지는 SFC 운동원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지역교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양질의 강의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편집부





<< 개학 부흥회 후기

대구/동대구/경북지방연합 개학 부흥회를 다녀와서



김신성(남산소망교회, 경북지방, 남산고등학교 2학년)

9월 8일은 대구/동대구/경북지방 연합 개학부흥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수련회나 찬양집회 같은 곳에는 많이 가 보았습시다만, '개학부흥회'라는 것이 있는 것은 처음 알았기에 참여를 고민했지만, 우리 교회의 간사님께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기대 반, 호기심 반인 마음으로 개학 부흥회에 참여했습니다.

말씀은 제가 전에 동계 수련회와 교회 수련회 때 뵈던 김명식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는데 매우 유쾌하시고 유머러스하신 분이셨습니다. 김명식 목사님은 설교 초반에 꼭 하시는 일이 있는데 자신의 별명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별명이란 바로 '전빵 목사 김목사'라는 별명인데 여기서 전빵이란 중국어로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따라 목사님 전빵!! SFC 전빵!! 하나님 전빵!!을 외치다 보니 어느새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목사님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날 설교에서 제가 가장 도전이 되었던 말씀은 '기독교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제 주위의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날 설교에선 학교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끝난 후에는 지방별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속한 경북지방에서는 조별로 나누어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 방법은 주사위를 굴러 나온 숫자만큼 게임 보드 판에 있는 자신의 말을 이동하여 그 도착한 칸에 적힌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유익했던 것은 서로 질문을 주고받다 보니 조원들이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 고민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개학 부흥회는 저에게 있어 학교에서의 저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같은 지방에 있는 SFC 운동원들을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받았던 느낌들과 나눔들이 저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또 다시 개학 부흥회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 명랑 체육대회 후기

명랑체육대회에 참여하고 나서 ...



여석준(경북대학교 SFC 11학번)

10월 3일, 날씨가 맑은 하늘 아래 대구 영선초등학교에서 대구·경산U 연합 명랑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조편성을 했는데 대구와 경산에서 사역하시는 간사님들을 포함하여 운동원

들과 같이 한 조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및 서로 다른 대학교에서 만난 운동원들과의 첫 만남은 다소 어색했지만, 본격적으로 운동회가 시작되고 나니, 순수했던 어린 시절 집에서 뛰쳐나오면 서로 잘 알지는 못해도 한결같이 맞이해주고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놀았던 놀이터 친구인 마냥, 단체줄넘기, 짝피구, 미션달리기 등을 하면서 우리는 금세 친해져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를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 명랑체육대회에 참여하여 참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고 있는 경북대학교 스케일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의 대학교에서 모인 운동원들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이런 다양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경북대학교 SFC 2년차인 제가 1년차 운동원 친구들을 바라볼 때, 대부분 암전하고 쑥스러워하면서도, 형, 누나들을 잘 따르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다른 대학교 SFC 1년차 운동원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번 운동회에서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모르는 형, 누나들과도 서먹하거나 부끄러움 없이 잘 어울려서 즐겁게 참여하는 다른 대학교의 1년차 운동원들의 모습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또한 이렇게 각 지역의 대학교에서 다양한 모습들로 개혁신앙인의 양성과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우리가 이번 운동회에 SFC란 이름 아래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땀 흘리며 하나가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특강을 듣고



남재준(대가대 05학번)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후배 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그들은 교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 실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특히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여러 말씀과 SFC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답을 주었다. 하지만 그 때일 뿐, 그 궁금한 상황이 벗어나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나의 말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전부터 신앙고백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실 나조차도 그 두꺼운 신앙고백서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은근히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개혁주의 특강 첫날, 황희상 간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특강은 그런 나에게 많은 생각과 또한 앞으로 졸업 후에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주었다. 특히 간사님께서 보여주신 소요리문답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모습을 볼 때는 가슴이 설레며 내 스스로 다시 교리공부를 하고 여러 책을 섭렵하여 교회에서 중고등학생이나 새가족반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혹시 시간이 허락지 않아 못 왔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운동원들이 있을 것 같아 간사님께서 하셨던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본다. 간사님께서 교리를 교리답게 가르치는 방법으로 ‘외우는 것’이 아닌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시며, 이를 위해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강조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도 하셨다. 예를 들어 하이델베르크는 전체가 문제제기 2%, 죄와 비참 7%, 중보자 예수그리스도 6%, 참된 믿음 51%, 감사의 삶 34%로 구성되어져 ‘참된 믿음, 감사의 삶’의 파트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다. 이는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의 ‘도덕법과 십계명’의 내용이 전체의 30%가 넘으며, 결국 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다. 그 후에는 문장의 내용을 보고, 전후 문맥을 파악하여 질문의 의도와 순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특히 십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이슈 등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개인적으로는 간사님께서 쓰신 ‘특강 소요리문답’ 책을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여, 후에 내가 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까지 갖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둘째 날. 이승구 교수님의 '개혁주의 역사와 신학, 중세 이후 개혁교회의 특징'에서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비교를 통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개혁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성경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특히 중간 중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정신을 못 차린' 교회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모습들을 역사의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 시대의 우리 개혁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눈물이 날만큼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할 모습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과 성경의 논리보단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와 같은 세대에서 이승구 교수님께서는 우리 SFC가 해야 될 것을 3가지로 말씀하셨다. 첫째로, 현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형태'가 계승되는 모습보다 그저 '형태'만 계승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 SFC는 철두철미한 '성경적 사상', '개혁주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삶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둘째로, 좋은 형제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 말씀을 보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본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교제하여, 그들에게도 성경 중심의 삶을 같이 살자고 권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셨다. 이를 통해 세상에 교회가 서로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셋째로,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과거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문화변혁 운동이다. 이 운동은 쉽지 않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라고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열심히 이 운동에 같이 동참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몇 주 전에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예배의 은혜는 예배시간에 말씀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은 바를 실천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개혁주의 특강의 강의들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결단하여, 2013년에는 우리 SFC가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뤄나가는 진정한 '개혁신앙인'으로서 같이 살아갈길 소망해본다.

*개혁주의 특강은 대구경북지역 SFC에서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개설하는 특강으로, 올해는 11월 3일(토), 11월 10일(토), 양 일에 걸쳐 각각 황희상 간사(특강소요리문답 저자)와 이승구 교수(국제신학대학원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승구 교수



황희상 간사





간사 카페 _ 신입 간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지현간사입니다.



2012년 보조간사로 한의대와 새벽날개(찬양팀), 대구동일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사역하기 위해 2013년 신입간사로 지원해 당당히 시험과 면접에 통과하고, 내년 겨울방학사역과 함께 시작하여 3월부터 천안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간사로서의 부르심에 진짜 발을 딛는구나 싶어 긴장도 되고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많이 배워 오겠습니다. 많이 부서지고 오겠습니다. 함께 물질과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건강과 재정으로 인해 훈련받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동기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배지현 간사의 자세한 이야기는 개인사역편지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ghdekdan30@hanmail.net

안녕하세요. 서성욱 간사입니다.



이 땅에 바른 교회를 기대하며 간사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가을 졸업 후에 센터(미조직학원)와 사무실과, 약목제일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사 시험과 면접에 합격하고, 보조간사로 섬기면서, 간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소명의 확신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도 함께 안겨 주었습니다. 저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내년 3월 간사 국내 훈련과 해외훈련을 앞두고 있는 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십시오. 11월 10일에 신입간사 예비모임에서 함께 살펴보고, 다짐했던 간사상(想)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간사,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간사, 운동원을 나의 자녀처럼 사랑하는 간사, 비전을 제시하는 통찰력 있는 간사, SFC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간사, 배움에 끝을 두지 않는 간사, 환경에 상관없이 신나게 사역하는 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서성욱 간사의 자세한 소식은 개인사역 서신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역서신을 받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stfary@naver.com

전체 훈련 일정

주제	기간(주)
성경	3
간사수련회	1
역사와의식 및 시대이해	1
자기관리	1
현장사역	2
공동체훈련	1
개혁주의	2
전도훈련	1
SFC훈련	1

합숙훈련내용(3월~5월)

내용 / 일시 / 장소

신입간사예비모임/01.25/천안 수련원

PSP훈련/01.28~02.02/수원

학복합 신입간사 수련회/02.04~05/미정

신입간사훈련 개원/03.04/천안하나교회

신입간사훈련 수료/05.31/천안하나교회

해외훈련/07.01~13/유럽

훈련비(1인 기준)

국내훈련 / 185만원

해외훈련 / 250만원

후원 및 문의

배지현 ▼

1376-02-018958 농협

068-13-162045 대구은행

연락처: 010 2049 7867

서성욱 ▼

352-0480-5597-33 농협

567602-01-206805 국민은행

연락처: 010 7759 7957





<< 간사 소식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하는 성숙함을 주소서!

허태영 간사

찬양: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며 매순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SFC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간사들과 운동원들을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교회와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회개: 좀 더 지혜롭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공활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 대구 경북 SFC가 새해에도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감격과 학원의 복음화를 이뤄가는 데 즐거움을 주시고, 열매도 허락하옵소서. 허 간사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복을 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소서. 함께하는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한다면 ...

기도의 손을 모아주세요.



이은아 간사

가을풍경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풍성하고 아름답네요. 형형색색이던 잎들로 무성했던 나무들이 어느덧 앙상한 가지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군요. 절정만 있는 게 아니네요. 겨울이 어김없이 오고야 마는군요. 늘 좋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겠지요? 청년들과 함께 있으니 가끔 청년인줄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으나 계절마다 또 다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제 삶이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이 많고 겸손해지는 간사이고 싶습니다. 앞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겠습니다. 운동원들과 오랫동안 앉아 마음껏 있어준 때가 오래전 일인 듯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야 아줌마 간사이기에 늘 운동원들과 여유롭게 차 한잔 못하는 아쉬움이 많은 간사입니다. 그러는 만큼 조각시간을 알뜰히 살아야 하는 절박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역할이 많기에 현실을 직시하고 제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과 위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이 더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면 기도의 손을 모아 주세요. 주님으로 충분한 가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

배재준 간사

이제 조금 있으면 대구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지 꼭 1년이 됩니다.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새로웠습니다.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새로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크고 새롭다는 것에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 당황하기보다는 잘 적응하고 대처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학원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성하 간사

어느 덧 5년에 가까운 시간을 대구경북지역 사역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제 곁에 묵묵히 기도해주고 후원해 준 동역자들을 두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묵묵히 이 길 함께 걸어가 주신, 늘 힘이 되어 주신 동역자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1년의 시간을 더 갖기로 했습니다. 신대원 진학은 한 해 늦추고, 내년 1년 동안 지역의 변화에 미미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또 잘 준비해서 진학할 수 있도록 공부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사 사역 세 팀에

접어들면서...

김주희 간사

동역자님,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벌써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네요.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픈 계절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올 한해 영진전문대를 담당하며 귀한 운동원을 동역자로 새롭게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 기쁨과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작되는 방학 사역도 은혜 속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내년에 안식년을 가지지 않고 사역을 연장해서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간사사역 두 팀(term)을 마치고 세 팀째에 접어들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사역하는 간사가 되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2012년 한 해도

감사드립니다.



김주혜 간사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동역자분들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북대 사역을 시작할 때의 설레임이 여전한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운동원에서 간사가 되어 강단에 서고 후배들을 만나는 이 1년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담당하는 보진,과학대 운동원을 만날 때에는 친숙함을, 경북대 운동원들을 만날 때에는 첫사랑의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동역자들의 기도로 이번 한 해 사역도 잘 진행되어 왔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더욱 운동원들의 어려움에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넓어져 양질의 말씀으로 운동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Sola Gloria!!

오주원 간사

1년 동안 사역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좌충우돌 하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제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이나, 사역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직면하면서 이제 초보 간사가 아닌 중견 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골4:2-5에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도록 힘써야 하는데 감사함에 깨어 있으며 기도하고,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2학기 사역 마무리와, 겨울방학에 있는 수련회들(대학생 수련회, 지방수련회), 그리고 2월에 있을 재신임 훈련(2주)을 감사함 속에서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 속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Sola Gloria!!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이든지 감사하며 겸손하게.

김현정 간사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배운 것은 세상의 높은 지식과 학문과 지혜가 아닌,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인간 속에 내재된 끝없는 욕망과 높아지고자 하는 죄의 꿈틀거림을 안다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이든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히 여기며, 배우는 자세로 겸손히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지방 수련회와 재신임 훈련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사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좋은 사람, 바른 간사가 되기를.

서우석 간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난 한 주는 몸살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새로운 사역에 대한 부담과 현재 사역을 정리해야 한다는 아쉬운 마음이 몸을 무겁게 했나 봅니다. 내년 부터는 교회사역팀에서 지방사역을 전담하게 됩니다. 혹시 제 간사 사역의 시작을 아신다면, 이는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더욱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잘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과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와 사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좋은 사람, 바른 간사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한 해 동안 동역하며 기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숲(상림)에서 드림.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몸부림

권 올 간사



저는 요즘 참으로 행복합니다. 영남대 SFC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혈기가 앞선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였고, 이번 학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큰모임을 사모하는 운동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자발적인 사모임도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방해공작도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조만간 도래하리라 확신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도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교회에 대한 애뜻함이 깊어지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윤세진 간사

SFC간사로 사역한 지 1년이 지나며, 곧 2년차를 맞이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새로운 사역으로 내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기도와 고민들, 지역 SFC 전체를 생각할 때 가야 할 길이기에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합니다. 함께함이 행복인 저에게 교회를 회복하며 하늘을 드러낼 동지들이 더 생겨나는 것들을 꿈꾸며 내년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 애뜻한 마음을 더욱 주시며, 바른 것들로 채워져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살롱!





SFC 겨울수련회

대구경북 SFC 대학생수련회

일시: 2012. 12. 26.(수) ~ 29.(토)

장소: 동일종합수련원(성주)

주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주강사: 이세령 목사(전 로테르담 사랑의교회 담임)

특강: 모슬렘 선교 강의(김성운 교수), 오피기, 전도서(김성수 교수), 신명기(김하연 목사)

누가복음(정재열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장재철 목사)

문의: 김봉진 대회장(010-2805-0050)

지방 SFC 중고생 수련회 (주제와 장소는 같습니다.)

주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장소: 동일종합수련원(성주)

각 수련회에서 정기대회(지방총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는 관심을 가지셔서 후보를 추천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추천: 서우석 간사 010-6258-0854)

경북지방

일시: 2013. 1. 6.(주일) ~ 9.(수) 3박4일

주강사: 박창원 목사(경동지역 SFC 대표간사)

특강: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학업 · 권을 간사, 삼위 하나님 · 장재철 목사, 김성균 목사

문의: 이영광 총무부장(010-2208-2857)

대구지방

일시: 2013. 1. 9.(수) ~ 12.(토) 3박4일

주강사: 김광석 목사(서울 동부제일교회 담임)

전체특강: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김영갑 목사)

아카데미: 교리, 성경인물, 성경, PBS

GBS: 각 조별로 진행되는 그룹 성경 공부문의: 이윤희 총무부장(010-4479-3302)

경서지방

일시: 2013. 1. 14.(월) ~ 16.(수) 2박3일

주강사: 배창훈 목사 / 선택특강: 대중문화, 이단, 성적, 성(性), 재정, 자아,

문의: 신은경 총무부장(010-9687-8555)

동대구지방

일시: 2013. 1. 16.(수) ~ 19.(토) 3박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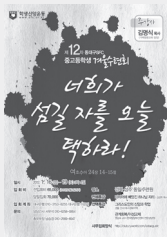
주강사: 김명식 목사(거제 염광교회 담임)

전체특강: 미디어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자리 · 김성학 목사

특강: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학업(권을 간사), 관계회복 / 이성교제(원남숙 교수)

예비대 1:1멘토링 실시

문의: 남승겸 총무부장(010-2569-6497)





경안지방

일시: 2013. 1. 23.(수) ~ 26.(토) 3박4일

장소: 영주 복된수련원

주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주강사: 최관하 목사('올보선생'의 저자, 영훈고등학교 재직 중)

특강: 학원복음화

문의: 신일현 총무부장(010-5758-4770)

※ 대구경북지역 SFC 동역자 큰모임

일시: 2012. 12. 15.(토) 오후 4시

장소: 경북대 기독교센터(대구 북구 경대로 17길 50번지, 053-956-5272)

대상: 대구경북지역의 간사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계시거나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금년 사역보고와 내년 사역계획 설명,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 6시 저녁식사.

문의: 허태영 간사(010-4533-7108)

2013 대구경북 SFC 신년 교사 아카데미

일시: 2013. 1. 21. (월) ~ 23.(수) 오후 7:00-9:30

장소: 대구 동일교회(청구고등학교 옆)

대상: 교회 중고등부(SFC) 교사 및 교역자, 학부모

1월 21일(월) _ 강의: 권장희 소장(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주제: 스마트폰의 피해와 처방

1월 22일(화) _ 강의: 정병오 대표(현 좋은교사운동 대표)

주제: 공부와 관련된 고민과 아픔, 어떻게 응답하고 지도할 것인가?

1월 23일(수) _ 부흥사경회: 김학중 목사(현 꿈의 교회 담임)

전국 리더십 컨퍼런스

일시: 2013. 1. 28.(월) ~ 2. 2.(토)

장소: 고려신학대학원(천안)

2013년 새롭게 선출된 위원들이 모여 훈련과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입간사훈련

2013년 3월 ~ 6월 (4개월간)

장소: SFC 훈련원 (천안하나교회 내)

대상: 배지현, 서성욱 간사

※ 사역구조변경

지금까지는 지방사역과 학원사역을 겸하여 사역했지만 2013년부터는 허태영, 서우석, 윤세진 3명의 간사가 교회사역부를 전담하여 사역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역의 장의 발전과 학원사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해당 간사나 사무실(053-759-0840)로 전화해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보고 및 요청]

학원선교현금

구미남교회3 금오교회3 남산소망교회3 대구서교회3 대은교회3 대현교회3 동평교회3 명덕교회3 박재인안미경3 불로제일교회3 사람이 꽃피는 교회2 삼덕교회3 서문로교회3 영남교회3 윤암교회3 이국회3 이성우3 이영식3 이원복3 이은성3 임정숙3 정은숙3 죽림교회3 청구교회3 침산동부교회3

허태영 간사

김경미3 김광희3 김대영2 김미주3 김미진3 김미화3 김범진3 김석호3 김성진3 김수경3 김유경1 김정발3 김정옥3 김정일3 김진혁3 김지동3 김해은3 김현아1 김혜수1 나채욱3 남다솔1 노경철3 도난희3 도혜진3 동역비1 류미영1 목광수3 문효준3 박민지3 박성주권순이3 박성태이경숙3 박진환배주경3 박진주3 박진희3 박해정1 배영윤이숙명3 배인숙3 배진호김은경3 백종준2 서경진3 서민성3 서부길김경희2 서울시민교회3 서은영2 설아름2 성동교회3 손진호3 신경훈3 신향숙3 신효미3 안미희3 안재홍정애슬1 안찬덕3 양동혁3 열린교회3 예수사랑3 우재영3 유해봉1 윤성민3 윤한성노영은3 윤혜린3 이강욱3 이경수3 이경희3 이규봉3 이미자3 이선혜1 이성우3 이승찬3 이승희3 이윤정2 이윤원1 이정일2 이상원3 장민철서진주3 장숙현3 장승익3 장창익3 전화열3 정문자3 정유순3 정혜숙3 조상아3 조지은3 차정환3 채민지2 최미니2 최범식3 최신주3 최인식1 하대중3 한가죽교회3 한승재3 허영재3 허인행3 홍사은3 홍순관3 황무자3 황선희3 황세영3 황영준3

이은아 간사

강기욱3 강은철3 구승식1 김가영1 김근태1 김다혜1 김미선3 김상진3 김신아3 김성학1 김순곤3 김윤경3 김은아3 김정임3 김진옥3 김주호3 남경애3 박수미3 박종명1 박진경3 백운영2 서상희3 서은성3 신지현3 삼승교회3 안정란1 엄화진3 영남이공대문3 육동란3 윤종호1 이철원1 이지영2 이은경1 이영주1 이종숙3 전광희3 전수경2 전정현1 최귀희3 차정환3 차종훈3 한병국1 한형원1 현주희2 홍미정3 황은함3

배재준 간사

강병학3 강신현3 강호원3 계명대1 구동완 · 박공주3 권혁명3 김련3 김경원2 김근순3 김기홍·황은령3 김민숙3 김영석3 김영선3 김일순1 김재현1 김한수1 나혜주2 노동환3 도혜진3 만민교회3 박영훈1 박민세1 박은숙3 박진희3 배정숙3 백희진3 서원기3 석정은3 양재호3 오수재3 오진석3 오현범1 용호중앙교회3 우호영3 윤민옥3 윤지희3 이동진2 이미란3 이상모1 이숙희3 이여진3 이윤희3 이인주임창화1 이자은1 이재혁1 이종구2 이종선3 이지희3 이철민3 이충진3 임우영3 전동원3 정미진3 정효영3 주영범3 지현희3 차정환3 린빛교회3 하양시민교회2 한울교회3 홍순애3 황창숙2

김주희 간사

고진영3 권재민2 권오창3 김미주3 김수경3 김영한3 김정숙3 김효진1 도혜진3 동일교회3 문효준2 산성교회3 서민성3 서진주3 손은하3 신은경1 신효미2 영대SFC25기3 예수사랑3 윤성민3 이건희3 이강욱3 이병혁3 이승환2 이희진2 경사랑2 정연미3 조윤경3 조현섭1 조혜정3 최용석3 최지선1 최지현3 최성현3 최인행3

금주혜 간사

경북대sic3 경북대sic-동문3 김연석3 김봉진1 김태섭3 김태우3 김한호3 김훈희3 대구은혜와 평강교회3 도혜진3 무명1 박재영2 박재장3 박종명3 박종원1 박종희2 박창주2 산성교회3 서형우3 손소미3 손수호3 송은원3 양기돈1 양효준3 여석준3 연태숙3 이동선3 이승기3 이은경3 이자은2 이진석2 이충진3 이효진3 장하나1 전동일1 전재윤3 정의상3 정준2 정진옥2 정대성3 최병옥3

황성하 간사

5여전도회3 강규태3 고기원집사2 김봉찬1 김성동2 김태우3 김태현1 김혜수2 김훈희3 박미진3 박종명1 박지혜3 박진주3 백운영2

성일교회3 성일청년회3 성일교회축구부1 서지혜3 손은익3 안동대3 안동대동문3 윤명수3 이은경1 이재혁1 이준호1 이한나2 이한아3 임가영3 장성훈3 전광희3 전규만3 정현호3 정현섭3 조창호3 조현일2 최영환1 홍순경2 황병복1 황민아3 황인석3

김현정 간사

경북대1 교대동문3 무명3 박성옥3 박순선2 성경애(나채욱)3 신명선1 안찬덕3 양기돈1 양동혁3 여석준3 우수영3 이규봉3 이상미2 이상한1 조혜정3 참빛교회3 한형원2 홍유리1

오주원 간사

경서지방SFC3 김동한3 김민숙3 김상목3 김순선3 김순복2 김여주3 김영숙3 김태섭3 류우성1 모동교회 정년회1 문경하3 박경옥3 박동식3 박미영2 박은혜(서울)2 박정현3 박창욱3 백인환3 신춘자3 오관섭3 유지수1 이광영2 이요바3 이지희3 이평화3 장기찬3 주영준3 조국교회3

서우석 간사

권보라3 김강희1 김동한(신수영)3 김성만(조영미)2 김아영1 김연석3 김훈희3 남다솔1 노선자3 대구대063 대구대SFC2 도혜진3 마아람1 밋쟁이행남3 모동교회SFC1 모동교회3 모동교회청년부1 문경하3 박경희3 백인환2 손아람3 이자은2 이지희3 이초롱3 임다희1 정미진3 정수일(김남희)3 정수정1 정은숙3 정철(유정래)3 조현목3 전한일2 채정순3 추경호3 최인철3 최지영3 최진영3 탁성진3 하가람3 황광재(한혜진)3 황인철3

권 올 간사

구지교회3 김갑순3 김순곤3 김순돌3 김종현3 김진희3 김태섭3 김태열1 김해근2 김홍식1 김희락3 남다솔1 박원주3 박용영3 박요진3 방혜진3 서은애3 안병태1 윤예지3 이경민3 이병혁3 이상급3 이상현3 이수재3 이재근2 이하나3 작은목자들교회3 장성훈3 정의상(김지혜)3 정재훈2 허인행3

윤세진 간사

권태윤3 김기문3 김기호3 김덕일3 김동호2 김민희2 김연석3 김용진3 김종진3 김현아1 남산소망교회3 대가대SFC2 마승원3 문경하3 박보람3 박은혜1 박주현1 배수진3 서문로교회친사회3 이동선3 이충진3 임다희2 임성민2 전한일2 정수정1 정윤선1 조현목3 최영우1 최진영3 최한림, 이초롱3 탁성진2

배지현 간사

권미경3 권오창3 김강미1 도혜진3 동일교회3 박예진2 박은혜1 백선미3 사랑해요1 서민성2 설기운2 설아름1 윤성민2 이상우2 이자은2 이재혁1 임가영2 임금자2 전한일2 정사랑2 정다혜1 정수정1 정은혜1 조유나1 조현목2 조혜정2 최범석2 탁성진2 홍수분2 황민경2

서성욱 간사(9-10월)

권진숙1 김병창1 김용철1 김태열2 문경화2 문호정2 박은별2 백인환2 서나리1 안수인1 약목제일2 정금희2 정대영1 전혜민2 최승인2

SFC주일헌금(학사마련헌금) 동평교회 시지하나교회

※ 후원자 옆의 숫자는 금액이 아니라 지난 소식지 이후 후원해 주신 횟수입니다.
※ 연말정산을 원하시는 후원자께서는 해당간사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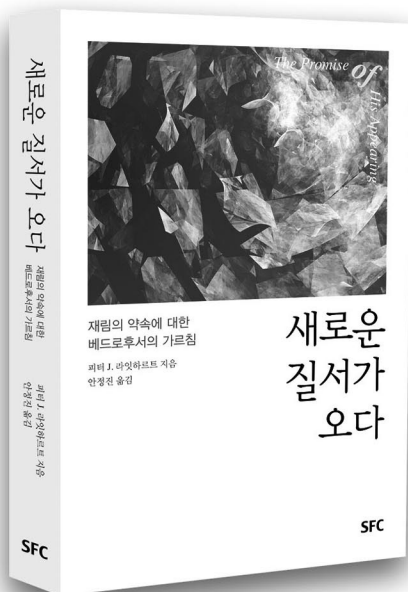
소식지 제작에 도움을 주신 정선희 동문
(네이버 검색창에 '동방한의원'검색)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파국시대의 새로운 질서이자 새로운 윤리이다

‘예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은 세상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정체성을 갖게 하며 부활의 능력을 통해 ‘지금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끈다.

베드로는 바울처럼 기독교인의 삶을 삼중적인 시간의 틀로 구성한다. ‘과거에 일어난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이 둘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과 현재 해야 할 윤리적인 것을 결정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신적인 능력’은 예수의 부활에서 발휘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였기 때문에, 미래에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_본문 중에서



양장본/205*140mm/192쪽/12,000원

새로운 질서가 오다

재림의 약속에 대한
베드로후서의 가르침

피터 J. 라잇하르트 지음
안정진 옮김

SFC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58-5 2층 / 전화: 02-596-8493





기도와 사랑에 감사하며, 2013년도 후원을 요청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빌4:17)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참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후원자들 앞에서는 말하기가 쉽지 않고,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저희이지만,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기에 현장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SFC 사역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뤄집니다. 간사들의 사례 또한 지역 SFC 사무실에서 함께 모아 본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난달에는 사무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례를 다 지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연말에 내년 예산을 가정과 교회에서 세우실 때 '내 자녀, 우리 교회 자녀'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며 바르게 교회를 가르치는 SFC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FC 간사들과 운동원들도 재정을 아껴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SFC가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멋진 SFC 운동원을 만들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평생 목숨을 거는 신실한 성도로 졸업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2012년 연말에 대구경북 SFC 불림

학원 선교 현금

대구은행 대구경북 504-10-118797-3

국민은행 대구경북 675001-04-175815

농협 대구경북 301-0104-7396-11

간사 개인 후원

허태영 농협 356-0009-2233-33 / 이은아 대구은행 195-08-016537

김주희 대구은행 163-13-020940 / 배재준 농협 438-12-168575

백종역대구은행 086-13-148358 / 금주혜 대구은행 218-13-156004

황성하 대구은행 064-07-468180-001 / 김현정 대구은행 218-13-242994

오주원 농협 485-12-132701 / 서우석 농협 743105-56-008608

권 룰 농협 702076-52-134064 / 윤세진 농협 302-0339-3431-51

배지현 농협 1376-02-018958 / 서성욱 국민은행 567602-01-206805

- 휴 직 -

강기두 대구은행 086-07-065885-001 / 박진규 농협 150130-51-077120

김은규 대구은행 086-13-073117

